

이날 이후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은 김선욱에게 일종의 시그니처 레퍼토리가 됐다. 수많은 거장들이 기량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도전하는 작품을 이미 10대에 완성형으로 세상에 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그의 시선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장대한 스케일과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난곡인 이유로 청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작품인 듯 보이지만 사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브람스가 25세에 비로소 선보인 청년기의 풋풋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연주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혹은 '대립'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김선욱의 시선은 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대립의 요소는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를 적절히 버무려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으로 폭발시키는 다채로운 다이내믹의 활용도 유효하다.

지속을 흐드는 1악장의 두터운 오케스트라의 파동이 가라앉으면 첫 타건이 시작되고 침착하고 밀도 있는 김선욱표 음색이 들려온다. 1악장에서는 특유의 교향적 분위기를 해치지 않지만 건반 하나 하나를 신중히 누르며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낸다. 절정부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은 의도적으로 이완한 듯 유려하게 그려지며 제시부 2주제의 독주부의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정서, 아르페지오 섹션에서 각 음표별로 느껴지는 입체적인 강약 조절 등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두터운 지층으로 쌓여있는 이 작품에서도 그가 얼마나 다면적인 톤의 표현에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피아노로 그린 베네딕투스라고 불리는 2악장은 이번 앨범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고 싶다. 1악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선욱은 '대립'보다는 '대화', 감정의 내적 폭발보다는 노래하는데 그 방점을 찍은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2악장은 김선욱이 브람스를 통해 그려내고자 하는 음악관이 모두 녹아있는 독백에 다름이 아니다. 마크 엘더와 할레 오케스트라 역시 이 독백을 위해 정적이고 아련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온 지휘자와 독주자의 호흡이 매우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대립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3악장에서는 김선욱도 감정의 연소를 마다하지 않는다. 널을 뛰는 도약, 오케스트라의 공격적인 어택이 날을 세우고 위협하지만 넉넉한 스케일로 펼쳐놓은 공간 속에서 투쟁하고 화해한다. 오케스트라와 독주악기가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발전되어왔던 모험이 비로소 론도 악장에서 만나 이상적으로 완결된다.

1번 작곡 이후 무려 23년이라는 간극을 지니고 있는 협주곡 2번은 1번의 장대한 스케일, 투쟁적이고 드라마틱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여유와 관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1악장을 지배하는 서정적인 심상은 김선욱이 지닌 종적으로 침잠하는 듯한 피아니즘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킨다. 이러한 성공적인 분위기로 인해 김선욱의 매력이 오히려 1번보다는 2번에서 더 잘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힘주지 않지만 존재감이 느껴지는 피아니즘이 선연한 관현악의 색채 속에 잘 녹아 들어가고 있다.

피아노가 오케스트라를 주도해나가는 2악장의 경우 김선욱이 확보한 공간 속에서 여유 있는 흐름이 느껴진다. 슬로우 비디오투를 보듯 독주부가 부각되는 각 구간은 각 음표들이 나지막히 떠오르는데 김선욱 특유의 몰입도가 음악적 장면으로 구현되는 것 같다.

첼로 협주곡 혹은 서정적인 아리아 같은 3악장은 확장된 실내악단 같이 투명한 할레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심분 발휘해주는 대목이다. 이 부분만큼은 김선욱의 피아노도 한결음 물러서 실내악적으로 빛어내는 아기가기한 앙상블과 유려하게 어우러진다. 물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관조하고 있지만 다이내믹을 적절히 구사하며 단조로움을 피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1번의 2악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김선욱은 완서악장의 각별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지니고 있다.

4악장은 음향적으로는 평이하나 6개의 주요 주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김선욱은 경쾌하고 자질한 수많은 트릴(trill, 떼꾸밈음)에서도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며 경과부를 지나 점차 외연이 확장되는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서서히 내부의 에너지를 폭발시켜나간다.

1번과 2번 모두 김선욱의 밀도 있고 진중한 고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명연이며 특히 완서악장의 나지막한 아름다움은 어떤 연주자보다도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선욱의 뛰어난 연주와 함께 이번 음반에서는 특히 마크 엘더와 할레 오케스트라의 역할도 돋보인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들이 교향적 특성을 진하게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의 운용을 과시적이거나 장황하게 펼쳐놓지 않으며 각 독주구간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세심하고 간결하게 각 구간을 섬세하게 분할하여 지휘하고 있다. 매우 세심하고 훌륭한 파트너이다.

글: 노태현(음악 칼럼니스트)